

도시철도 5~8호선 역사내 안내표지판 다국어 표기 추진계획(안)

I 개요

서울시 『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』 의거 시행중인 역사내 각종 안내표지판내 다국어(한,영,중,일)표기관련 역명이 (한글+한문) 혼용표기 되어 외국 관광객에 혼란을 초래하는 대상역에 대한 우선 조치로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함.

II 관련근거

- 2015년 다국어 안내표지판 정비계획[관광사업과-5457호('15.06.02)]
- 서울지하철 한문 안내판[파이낸셜뉴스('15.11.24)]
- 지하철역 안내판 개선[시장요청사항('15.11.24)]

III 추진계획

- 역명 혼용표기(한글+한문) 역사에 대하여 임시 조치(스티커 부착) 시행
 - 대상역 : 5~8호선 17역
 - 추진기간 : '15년 12월중 완료조치(서울메트로 임시부착 사례 참조)

	정비 전	정비 후
승강장 중앙기둥 및 사각역명판		

- '16년 이후 소요예산 감안 전체역사 순차적 시행
 - 정비 대상 : 외부유도플사인(7호선 연장구간), 입구역명판(5~8호선) 기둥역명판, 벽체역명판, PSD 안전문 역명판